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년 10월 10일



복음 나누기

연중 제28주일(10월 10일)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마르 10,17-27)



하늘의 보물

그림 정미연 소화테레사 | 화가

가진 것을 모두 이웃과 나누며 주님을 따르는 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외적인 생활과 내면의 생활이 따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지만 하늘의 보물은 나눔과 청빈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때 절로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 복음 나누기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59번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저희가 당신을 그리워하며 갈망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7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1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19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20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3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24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25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26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27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르 10,17)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르 10,27)

내 생각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행한 적이 있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복음 나누기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며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재산의 포기를 요구하시지도 않으셨고, 그 재산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의지하고 아끼는 재물을 가장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천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이제 저승으로 가는데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는 처음엔 돈을, 다음에는 권력을, 그리고 여자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천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그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남에게 베푼 것은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나라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얼마나 있으십니까?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가져갈 것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59번 “너희는 가진 것 팔아”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